

## 역사를 미분하기: 브로델과 미시사

고 원

- |                     |            |
|---------------------|------------|
| I. 머리말              | IV. 역사와 인간 |
| II. 미시사에 대한 브로델의 언급 | V. 맺음말     |
| III. 역사의 미분         |            |

### I. 머리말

이탈리아 미시사가 까를로 긴즈부르크(Carlo Ginzburg)는 「미시사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두세 가지 것들」이라는 논문에서 ‘미시사(micro-histor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을 언급한다.

사실 브로델은 미시사라는 말을 정확하지만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하였다. 그것은 ‘사건사’와 동일한 뜻이었고, 오케스트라 지휘자와도 같은 주인공들이 “이른바 세계의 역사”를 지배한다고 보는 ‘전통적 역사’와 동의어였다. 짧고 분출적인 시간의 한계에 갇힌 이러한 전통적 역사에 비하면 오히려 미시사사회학이나 계량경제학이 더 흥미롭다는 것이 브로델의 입장이었다.<sup>1)</sup>

---

1) Carlo Ginzburg, "Microhistory: Two or Three Things That I Know about It", 김동원 옮김, 「미시사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두세 가지 것들」, 박차섭 엮음, 『미시사란 무엇인가』(푸른역사, 2002), p. 97.

이 논문에서 브로델은 미시사의 정반대 편에 위치하는 “거시적” 역사학의 대표자로 그려진다. 긴즈부르크는 거시사와 미시사를 극단적인 롱샷(long shot)과 클로즈업(close up)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역사를 바라볼 때 멀리서 전체를 조망할 것인가 아니면 줌으로 끌어당겨 구체적인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할 것인가의 문제를 역사연구의 결정적인 쟁점으로 부각시킨다. 이러한 대립구도 속에서 브로델의 역사학은 “구조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 의거하여 역사의 “반복적인 현상”을 “수치화”하고, “계량적인 모형”을 정립하는 일종의 사회과학적 역사학으로 나아갔다고 설명된다.<sup>2)</sup>

그렇지만 긴즈부르크는 브로델의 역사학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있다. 미시적 접근을 강조하는 그가 정작 브로델의 역사학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시각과 도식적인 대립구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왜 단순화시키는가?”, “역사가들의 진정한 문제는 현실의 복잡성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sup>3)</sup>이라는 미시사의 주요한 주장들은 롱샷 대 클로즈업이라는 명확하지만 극도로 단순한 구도 앞에서 무색해지고 만다.

아마도 긴즈부르크는 미시사가 얼마나 새로운가를 강조하기 위해 브로델이라는 적대적 타자를 설정하고 이 “낡은 역사학자”와의 대립구도를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려 했던 것 같다.<sup>4)</sup> 그렇지만, 브로

2) 긴즈부르크는 피에르 쇼뉴(Pierre Chaunu), 미셸 보벨(Michel Vovelle), 프랑수와 뤼레(François Furet)의 계열사를 “브로델 류”라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묶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와 수치를 중요시했던 계열사들은 브로델이 아닌 에르네스트 라브루스(Ernst Labrousse)의 후계자들이었으며, 브로델의 작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고 원,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브로델」, 『프랑스사 연구』, 제11호(2004, 8), pp. 6-8 참조.

3) Giovanni Levi, “On Microhistory”, 강문형 옮김, 「미시사에 대하여」, 『미시사란 무엇인가』, p. 86. 또한 Jacques Revel, “L’histoire au ras du sol” in Giovanni Levi, *Le pouvoir au village: histoire d’un exorciste dans le Piémont du XVII<sup>ème</sup> siècle*(Gallimard, 1989) 참조.

4) 이와 같은 방식은 이른바 “새로운 역사학들”의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신문화사, 미시사 등 새로이 등장하는 역사학마다 자신들이 얼마나 새롭고 참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통과의례 마냥 브로델에 대한 비판을 한번씩은 가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그 결

델의 역사학은 통샷과 클로즈업의 도식적인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러한 이분법에는 브로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의 개념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긴즈부르크를 흉내 내어 말하자면, 브로델의 역사학은 통샷보다는 롱테이크(long take)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sup>5)</sup> 장기지속을 그토록 강조했던 브로델의 역사학은 ‘멀리서 바라보기’가 아닌 ‘오랫동안 바라보기’인 것이다. 통샷은 클로즈업과 대립하는 개념이지만 롱테이크는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 롱테이크는 클로즈업을 포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브로델의 역사학이 총괄적인 조망을 지향하면서도 역사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 또한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역사의 미시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그가 지향했던 장기지속의 역사 서술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작업은 전부가 아니면 전부를 택해야 하는 적대적 이분법의 인식틀이 야기해온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역사연구를 어느 하나의 좁은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지평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이다.<sup>6)</sup> 이를 위해 ‘거시사’와 ‘미시사’

---

과 브로델의 역사학은 그 자체로서 이해되기보다는 ‘새로운 역사학’이 극복해야 하는 모든 낡은 것들의 총체로서 취급받아 왔다. 그렇지만, 배제된 타자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여받으려는 시도는 항상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이 적대적 대립구도가 타자로 설정된 브로델뿐만이 아니라 그 대립물로서 구성되는 ‘새로운 역사학’의 성격까지도 왜곡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배제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낡은” 방식을 브로델은 “역사주의의 오류”라고 비판한다. 문제는 적대적 대립구도 그 자체를 벗어나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서 브로델이 제기하는 ‘시간의 다원성’은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Fernand Braudel, “La Longue durée”, *Les Ambitions de l'histoire*(Editions de Fallois, 1997), p. 159 참조.

5) 통샷, 클로즈업, 롱테이크 등은 영화촬영 기법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들이다. 통샷은 ‘멀리찍기’, 롱테이크는 ‘길게찍기’를 의미한다. 긴즈부르크는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Siegfried Kracauer)를 따라 거시사와 미시사를 설명할 때 종종 통샷과 클로즈업이란 영화용어를 사용한다. 영화사가이기도 했던 크라카우어의 역사학에 대해서는 Siegfried Kracauer, *History: The Last Things before the Last*(Oxford University Press, 1997)를 참조.

6) 이는 브로델 역사학의 기본 문제설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제2장에서 이 문제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들을 전위시키는 방향으로 브로델의 역사학을 가로질러 보자.

## II. 미시사에 대한 브로델의 언급

먼저 긴즈부르크가 지적한 브로델의 언급부터 살펴보자. 긴즈부르크가 참조한 브로델의 글은 1950년대 후반에 쓰여진 「역사학과 사회학」(1958)이라는 논문이다. 이 글에서 브로델은 미시사라는 용어를 두 번 사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사건사라고 이야기되는 표면의 역사가 있다. 이 미시사(cette microhistoire)에는 잡다한 사실들과 차라리 사회드라마라고 말해야 할 정도로 격렬하고 폭발적이며 한 국가 혹은 한 세계(혹은 그 이상)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사건이 공존하고 있다.<sup>7)</sup>

표층에는 하나의 사건사(une histoire événementielle)가 단기적 시간 안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미시사(une microhistoire)이다.<sup>8)</sup>

이 논문에서 미시사에 대한 브로델의 언급은 이 두 문장이 전부이며 그 이상의 별다른 논평이나 부연설명은 나오지 않는다. 긴즈부르크의 주장과는 달리 이 논문에서 브로델은 미시사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의 마니교적 이분법 구도 속에서 사건사 혹은 미시사를 단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브로델은 이 같은 이분법 자체를 비판한다. 이 논문에서 브로델이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역사학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다양성이야말로 역사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따라서, 브로델은 “오늘날 역사학의 심층적인 흐름은 상이한 노선과 관점들 사이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이제껏 사람들이 그 안에서 헛되이 칩거하려 했던 잊따른 정의들을 수용하고 흡수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결국 모

7) Fernand Braudel, “Histoire et sociologie”, *Les Ambitions de l'histoire*, p. 186.

8) Fernand Braudel, “Histoire et sociologie”, pp. 189-190.

든 역사는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sup>9)</sup>

이 논문에서 브로델이 미시사를 언급하는 것은 역사학의 “풍요성과 다양성”을 소개하기 위해서이다.<sup>10)</sup> 더욱이, 브로델은 단 하나의 정의가 존재하는 유일한 미시사(*la microhistoire*)가 아닌 여러 형태들 가운데 하나(*une microhistoire*)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사건사 역시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형태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아마도 긴즈부르크는 브로델이 미시사를 사건사와 비교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가 미시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브로델에게 미시사가 반드시 사건사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긴즈부르크가 참조한 논문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쓰여진 「문명사: 과거는 현재를 설명한다」(1959)에서 브로델은 단기적 시간에 국한된 사건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미시사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는 하나의 연구가 유효하려면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 Fernand Braudel, “Histoire et sociologie”, p182.

10) 이 논문은 원래 사회학자 조르주 귀르비츠(Georges Gurvitch)가 편집한 *Traité de sociologie*, 2 vol.(PUF, 1958-1960)의 서론 중 제4장으로 처음 발표되었다. 역사학을 고정되고 경직된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회학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이 글에서 브로델은 20세기 초 프랑스 역사학계를 지배했던 방법론 학파 이후에도 역사학은 다양한 문제의식과 대상들, 방법들을 수용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해왔으며, 또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1) 브로델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그가 반대한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었다. 폴 리코어(Paul Ricoeur)나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er)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브로델의 역사서술에서 사건의 역할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지도 않다. 문제는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시간인 것이다. 그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건사는 단기적 시간에 국한되어 있는 잡다한 사실들, 즉 역사 진행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건들의 역사이다. 반면, 단기적 시간을 넘어 그 이상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았다. 사건에 대한 브로델의 언급은 Fernand Braudel, *La 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Philippe II*, Tome II (Armand Colin, 1949), p. 223; 브로델의 역사서술 방식에 대해서는 Paul Ricoeur, *Temp et récit*, Tome I et III(Seuil, 1983), Jacques Rancier, *Les noms de l'histoire*(Seuil, 1992) 참조; 사건사와 단기적 시간의 문제는 Fernand Braudel, “La Longue durée” 참조.

즉 가장 수수한 문화들로부터 **주요문명**들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그리고 특히 이 **주요문명**들이 하위문화들로 나누어지고, 이 문화들은 훨씬 더 작은 요소들로 나누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미시사(une microhistoire)와 전통적인 형태의 역사학의 가능성들을 다루자는 것이다. 이러한 사다다리 구조의 아래 부분에서 어떤 (작은)요소들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를 알아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sup>12)</sup>

여기서 브로델이 생각하는 것은 문명 전체를 구성하는 작은 부분들에 대한 연구, 긴 시간을 구성하는 작은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다. 물론 브로델의 관심은 미시적 요소들(micro-éléments)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요소들이 만들어 내는 관계들이다. 이러한 역사연구 방법이 아날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인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에게 영향 받은 것임을 브로델은 우리가 앞서 인용한 문장 바로 다음에서 밝히고 있다.

마르크 블로크의 사상은 내가 적절히 이해했다면, 한편으로는 프랑스 문명을 유럽의 틀 속에서 위치 정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프랑스를 개별적인 프랑스들로 해체하는 것이다 [...] 마지막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거대한 것에 이르는 이들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즉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중첩되며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것들이 전체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또는 우연찮게 그것들이 어떻게 번영해 나가는지 또는 아닌지를 이해하는 것이다.<sup>13)</sup>

여기서 우리가 지적해야 할 사실은 미시사가들 역시 블로크에 대해 동일한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긴즈부르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12) Fernand Braudel, "Histoire des civilisations: le passé explique le présent", *Les Ambitions de l'histoire*, p. 224. 인용문 중 강조는 저자 본인이 한 것이다.

13) Fernand Braudel, "Histoire des civilisations", p. 225. 그렇지만,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계'는 블로크만이 아니라 루시앙 페브르(Lucien Febvre)에서 브로델에 이르는 아날 역사가들의 공통적인 연구주제였다. 예컨대, 페브르는 이미 1905년의 논문에서 역사가의 임무란 삶의 유기적 기능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들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Lucien Febvre, "Les régions de la France, La Franche-Comté", *La Revue de synthèse historique*, No. X(1905), pp. 185-187. 브로델은 관계의 개념을 바탕으로 장기지속, 진화 그리고 집합(ensemble) 등의 개념을 전개시킨다. 이 개념들에 대해서는 고원,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브로델」, p. 17 참조.

있다.

물론 우리는 거시사와 미시사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마르크 블로크는 그의 『봉건사회』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즉 거시사와 미시사 사이, 혹은 극단적인 롱샷과 클로즈업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면서, 외관상 예외로 보이는 현상들과 짧게 지속되는 경우들을 통하여 역사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줄곧 논의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것이다.<sup>14)</sup>

사실 미시사 역시 역사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을 모두 부정한 채로 축소된 규모의 세밀한 분석에만 고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시사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치즈와 구더기』에서 긴즈부르크는 16세기 이탈리아의 조그만 마을에 사는 방앗간 주인 매노키오의 사례 분석에서 출발하여 당시 민중문화에 내재된 자연발생적 우주생성론의 거대한 흐름을 고찰하고 있다. 미시사는 역사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위에서 우리가 인용한 긴즈부르크의 말처럼 거시적인 시각과 미시적인 분석은 조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브로델과 미시사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브로델의 방법은 작은 사례에서 출발해 그와 연관된 거대한 흐름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었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 III. 역사의 미분

브로델은 자신의 역사 연구에서 “문명의 하위 요소들”, 즉 구체적인 고 작은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브로델의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물질문명, 경제 그리고 자본주의』(이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로 약칭)를 참조할 수 있다. 삼부로 구성된 이 방대한 저작을 통해 브로델은 앞서 인용한 논문에서 언급한 문명의 역

14) 카롤로 긴즈부르크, 「미시사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두세 가지 것들」, p. 116.

사를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의 제III권 〈세계의 시간〉에서 브로델은 프랑스라는 역사적 공간을 분석하면서 “역사의 미분”을 이야기한다.<sup>15)</sup> 브로델의 삼부작 제I권 〈일상생활의 구조〉가 유럽에서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거대한 물질문명의 역사를 ‘적분’(intégration)하는 것이었다면 제III권에서 브로델의 작업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만들어낸 장구한 “세계의 시간”을 ‘미분’(différentiation)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브로델의 역사학을 이른바 ‘거시사’로 이해하는 이들은 제I권에서 브로델이 ‘역사의 전체성(totalité)’으로 표상하는 역사의 적분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제III권에서의 작업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역사의 미분’이란 ‘가상적인’ 하나의 전체성으로 간주되고 유일한 대서사로 집중되는 인류사의 진행 수준을 각각의 계기마다, 각각의 현재마다 설정되는 역사의 힘들로 해체하는 것이다. 역사를 미분한다는 것은 역사의 과정을 구성하는 ‘역사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미분을 통해 스스로의 진화를 향한 역사의 불안정성과 긴장을 파악할 수 있다.<sup>16)</sup>

브로델은 역사의 미분을 통해 장기지속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동력을 분석하고 있다. 세계의 시간이란 다양한 역사적 힘들이 서로 관

15) 브로델은 “미분사”(微分史: histoire différentiel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Fernand Braudel, *La Civilisation matérielle, économie et capitalisme, XV<sup>e</sup>-XVIII<sup>e</sup> siècle*, III(Armand Colin, 1986), p. 287. 우리나라 번역서에는 “역사에서의 미분”이라고 의역되어 있는데, 아마도 ‘미분사’라는 용어가 우리말에는 존재하지 않았을뿐더러 그 어감 역시 어색하기 때문일 것이다. 페르낭 브로델, 주경철 옮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I-1(까치, 1997), p. 465.(이하 이 책의 인용표기는 번역서를 참조)

16) 바로 이점에서 『필립 II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이하 『지중해』로 약칭)에서의 브로델과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의 브로델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저작 모두 삼부의 구조로 이루어져있지만, 『지중해』의 제III권은 브로델 자신의 표현처럼 “전통적인 역사”, “사건사”인 반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의 제III권은 미분사라는 차이점이 있다. 다시 말해, 『지중해』는 역사의 구조를 탐구하고 그 구조를 통해 역사적 사건들을 해명하는 순서로 서술되지만,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에서는 역사의 구조(제I권)와 구조의 역사(제III권)가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지중해』의 서술구조에 대해서는 Fernand Braudel, “Préface”, *La 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Philippe II*; 『지중해』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에서 브로델이 제기하는 각각의 문제설정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고원,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브로델」, pp. 12-18을 참조.



계 맺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로 대립되고 어깨를 겨루며 심지어 서로 상반되기까지도 하는” 이 힘들은 역사발전의 버팀목이기도 하며 장애물이기도 하다. 각기 고유한 시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이 힘들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역사는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sup>17)</sup>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면서 역사의 전개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힘들의 우위 관계는 미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역사의 각 단계에서 주어지는 구체적인 역사상황 속에서만 결정될 뿐이다. 따라서 역사의 과정은 선형적으로 파악될 수 없고, 그 과정을 구성하는 관계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sup>18)</sup> 결국 미분사란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만들어 내는 역사적 힘들 사이의 긴장, 갈등, 대립 관계에 대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브로델의 구체적인 분석을 따라가 보자. 제III권의 첫 장에서 브로델은 “세계-경제(l'économie-monde)”라는 역사적 시공간을 정의하고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시간들을 설명한다. 이후의 장들에서는 세계-경제라는 역사적 시공간의 진화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시간”을 현실에 존재해온 다양한 하위시공간들로 분해하여 고찰한다. 베네치아에서 시작하여 안트워프로, 제노바로 그리고 네덜란드와 프랑스, 영국 등으로 브로델의 분석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프랑스라는 시공간의 분석이다. 규모가 작은 도시들, 네덜란드, 영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대한 공간인 프랑스는 보다 작은 하위요소들로 해체하고, 역사적 시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힘들 간의 갈등과 긴장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17) 역사의 과정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간들에 대해서는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I-1, pp. 90-115를 참조.

18) 따라서 역사의 일반 이론은 존재할 수 없으며, 현실의 구체적인 과정을 가진 고유한 역사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계승하여 임마뉴엘 월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은 ‘자본주의 일반(Capitalisme en général)’을 비판하며 ‘역사적 자본주의(Capitalisme historique)’의 개념을 제시한다. Immanuel Wallerstein, *Historical Capitalism With Capitalist Civilization*(N N Norton & Co Inc, 1983) 참조.

브로텔에 따르면, “프랑스는 작은 지방들의 모자이크 국가이다”.<sup>19)</sup> 마르셀 모스(Marcel Mauss)가 태평양 문명을 분석하듯이 브로텔은 프랑스를 분석한다. 즉 프랑스를 구성하는 각 지방들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으로 “각 조각을 이루는 지방은 협소한 공간 내에서 자급자족적인 방식으로 각기 제 빛깔대로 살아간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외부의 경제생활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지방들은 같은 경제적 언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브로텔의 관심은 15~18세기 프랑스라는 역사적 시공간이 내적 응집성을 갖추는 과정, 그리고 나머지 세계에 대응하여 하나의 단일한 집합(ensemble)으로서 행동하는 능력을 얻는 과정이다. 국가 단위에서 자본주의가 탄생하고 외부로 확대되어 국제화된다는 기존 경제학자들의 시각과는 달리, 브로텔은 하나의 성긴 구조로서 세계-경제가 생겨나고 이 외부구조가 자신의 진화과정에서 내부 조직망을 촘촘하게 메워들어 간다고 보았다. 따라서, 브로텔이 고찰하는 과정은 세계-경제라는 ‘게젤샤프트(gesellschaft)’가 스스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라는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를 창출해내는 과정이다.<sup>20)</sup>

물론 이 과정은 프랑스라는 공간 속에서 다양한 역사적 힘들이 서로 교차하고 갈등하며 충돌하는 흐름을 통해 생겨난다. 브로텔은 하나의 프랑스가 만들어지는 기준을 “전국시장”(marché national)의 등장으로 설정하고, 프랑스 시공간을 외부에서 지배하는 세계-경제의 힘들과 단일한 전국시장을 만들어 내려는 공간 내부의 힘 사이에 형성되는 긴장

19) 페르낭 브로텔,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I-1, p. 438.

20) 브로텔은 일상생활 혹은 물질문명의 토대 위에서 자본주의가 탄생하지만, 이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다시 자신의 토대를 변형시키고 교란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페르낭 브로텔,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1, p. 13 그리고 제III권을 참조;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의 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Immanuel Wallerstein, “Societal Development, or Development of the World-System?”, *Unthinking Social Science: The Limits of Nineteenth-Century Paradigms*(Polity Press, 1991), pp. 64-79를 참조. 월리스타인은 자신의 스승과 동일한 시각에서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과 갈등을 추적한다. 프랑스는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어 본 적이 없었기에, 프랑스 외부에 존재하는 세계-경제의 중심 지역이 베네치아에서 안트워프로 그리고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할 때마다 프랑스라는 시공간 내부에 설정되는 힘들 간의 대립전선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이 대립과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브로델은 파리와 리옹이라는 적대적인 두 주인공을 내세운다. 파리가 전국시장을 형성하려는 힘의 중심을 나타낸다면, 이탈리아 상인들이 창조하고 상업적으로 유럽에 개방되어 있는 리옹은 세계-경제의 힘을 대변한다. 파리가 프랑스 민족국가의 운명을 상징한다면, 리옹은 세계-경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리옹은 15세기말 프랑스 경제의 중심에 서있었으며 이것은 곧 프랑스 경제가 국제경제에 전적으로 종속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1557년부터는 경제 중심지로서 리옹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세계-경제의 중심이 15세기 이탈리아에서 16세기 대서양으로 옮겨가면서 지중해 경제와 연결되어 있던 리옹은 더 이상 세계-경제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프랑스 내에 고립되어 버린다. 하지만, 리옹의 후퇴가 곧바로 파리의 흥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경제를 이끄는 힘이 15세기 이탈리아의 성장에서 16세기에는 대서양의 성장으로 그리고 17세기에는 북유럽의 지배적인 콩종크튀르로 변화되었을 뿐이다.

프랑스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세계-경제의 다양한 힘들과의 투쟁에서 파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이다. 브로델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시기를 1760년경으로 이야기한다. 이 시기는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가 전통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합스부르크 제국과 동맹을 맺은 직후이다. 브로델은 파리가 프랑스 경제의 중심지로 일어서는 데에 정치적 사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기 앙토니에티(Guy Antonietti)를 인용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한다.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망의 팽창은 이전과는 달리 더 이상 적대적인 장벽에 부딪치지 않았다. 2세기 전부터 프랑스를 포위하던 합스부르크 가문 소유지의 장벽은 이미 깨졌다 [...] 부르봉 왕족이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들어섬으로써 동맹을 붕괴시킨 것으로부터

우리는 스페인, 이탈리아, 남부 및 서부 독일, 네덜란드 등 프랑스를 둘러싼 지역의 분위기가 개방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파리로부터 카디스로, 파리로부터 제노바로(그리고 이곳을 경유해서 나폴리까지), 파리로부터 오스텐데와 브뤼셀(이곳은 빈으로 가는 중개지점이었다)로, 파리로부터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도로들이 자유롭게 되었고 이 도로들은 30년 동안(1763-1792) 전쟁 때문에 끊어지는 일이 없었다. 이제 파리는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금융상으로도 서유럽 대륙의 교차로가 되었다. 그 때문에 사업이 발전하고 자본의 유입이 증가했다.”<sup>21)</sup>

#### IV. 역사와 인간

이상에서 브로델이 제시하는 “미분사”, 즉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베네치아, 안트워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작은 하위공간들로 나누고, 이를 다시 더 작은 조각들로 해체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역사적 힘들의 긴장, 갈등, 대립에 대한 분석은 작은 사례에서 출발하여 역사의 긴 흐름으로 나아가는 미시사가들의 방법과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방법의 차이는 아마도 역사와 인간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서 연유할 것이다. 브로델의 역사학에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미시사가들은 비판한 바 있었다.<sup>22)</sup>

사실 역사와 인간의 문제는 브로델만이 아니라 프랑스 인문학자들과 비 프랑스권 인문학자들 사이의 오랜 논쟁 주제이기도 하다. 이미 미시사가들보다 앞서 영국의 역사학자 톰슨(Edward P. Thompson)은 인간의 경험, 개개인들의 삶의 체험을 무시한다고 프랑스 학자들을 격렬

21)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I-1, p. 464.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가 서유럽 경제의 중심지로까지 올라 선 것은 아니었다. 단지 프랑스 국내에서만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뿐이다. 브로델에 따르면, 무엇보다 파리는 대외교역에 유리한 항구도시가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22) Giovanni Levi, *Inheriting Power: The story of an Exorcist*(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p. 16 참조.

히 비판했었다.<sup>23)</sup> 이런 점에서 미시사가들이 톰슨의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미시사의 주된 주제인 민중문화란 바로 톰슨이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민중전통과 동일한 것이며, 또한 미시사가 조반니 레비(Giovanni Levi)가 이야기하는 “급진적 세속주의(radical secularism)”는 톰슨이 옹호하던 “정치적 급진주의(political radicalism)”와 같은 것이다.<sup>24)</sup> 이들은 모두 동일한 지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세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주체’라는 주체의 근대 담론에 기반하고 있다. 주체의 근대 담론은, 실천적 주체는 스스로를 만들어 내고 교육시킨다는 관념, 따라서 이 주체는 다양한 형태의 억압, 무지, 미신, 궁핍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관념 등으로 구성된다. 칸트의 ‘인류’, 피히테의 ‘인민’ 혹은 ‘민족’ 더 나아가 헤겔의 ‘세계정신’ 그리고 루카치 이후의 마르크스주의에서 주장하는 역사의 주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로 뿌리에서 나온 개념들이다.<sup>25)</sup>

물론 미시사는 전통적인 사회사와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미시사가들은 과거 사회사가들이 역사를 인식하는 준거들이었던 ‘국가’나 ‘민족’과 같은 관념들을 거부하고 있다.<sup>26)</sup> 그렇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민족중심주의적 환상”에 대해서는 명목론적인 입장(nominalism: 개체들이 일차적 현실이고 그것에 입각하여 보편들이 ‘추상’된다는 입

23) Edward P. Thompson, *The Poverty of Theory and Other Essays*(Monthly Review Press, 1978)을 참조. 톰슨에 대한 재비판은 Gareth Stedman Jones, “History and Theory”, *History Workshop Journal*, No. 8(Autumn, 1979)과 Perry Anderson, *The Arguments within English Marxism*(Verso, 1980)을 참조. 스테드만 존스는 톰슨의 마니교적 이분법을, 페리 앤더슨은 그의 경험주의를 비판한다.

24) 조반니 레비에 따르면, “미시사 노선을 지향하는 역사가들은 대개 마르크스주의, 즉 정치적으로는 좌파를 지향하며 형이상학에는 거의 무관심한 급진적 세속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시사에 대하여」, p. 59.

25) Etienne Balibar, *La Philosophie de Marx*(La Découverte, 1993), pp. 26-28 참조.

26) 조반니 레비는 과거 사회사가 채택한 역사 인식의 준거들을 “민족중심주의적 환상”이라 부르고 있다. 「미시사에 대하여」, p. 46.

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시사가들이 유독 ‘인간’에 대해서는 실재론적 입장(realism: 유 또는 본질이 개체들의 존재에 선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미시사의 근본적인 딜레마이기도 하다. 미시사가들은 분석의 초점을 ‘인간’에 맞추므로써 역사에 대한 민족중심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제 인간이라는 관념이 미시사를 과거의 역사학(혹은 그들이 부정하고자 했던 근대의 사회사적 전통)에 다시 합류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브로델은 미시사가들(그리고 전통적인 인간주의 역사가들)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종종 제기되는 오해들과는 달리 브로델은 인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시각을 거부하는 것이다.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에서 브로델은 “사회가 내 안에서 사유한다”는 마르크스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널리 퍼져있고 사방에 편재하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느끼는 실체인 사회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며,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지시한다 [...] 혹시 역사가가 자기가 상대하는 것이라고는 각 개인들밖에 없으며 그 개인들에 대해서 사후에 마음대로 책임 물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지나치게 현상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닐까? 사실 역사가의 임무란 흔히 오용되는 표현대로 단지 ‘인간’을 찾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있는 다양한 크기의 사회집단들을 인식하는 것이다.<sup>27)</sup>

인간의 본질을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으로 본다는 점에서 마르크스<sup>28)</sup>와 동일한 시각을 공유하는 브로델은 역사의 흐름과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을 찾기보다는 인간들을 역사적으로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의 해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분석의 초점을

27)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2, p. 651.

28)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 6번에서 “포이어바흐는 종교적 본질을 인간적 본질로 해소한다. 그러나 인간적 본질은 독자적 개인에게 내재적인 추상은 아니다. 그 현실성 속에서 그것은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이다”라고 말한다. Georges Labica, *Karl Marx, Les Thèses sur Feuerbach*(PUF, 1987), p. 18.

개인 혹은 구조가 아닌 사회적 관계에 맞추면서 브로델은 인간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두 가지 시각, 즉 인간을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정의하려는 ‘개인주의적 관점’과 인간을 기능적 구성원으로 간주하며 불가분의 통일체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전체주의적 관점(holism)’을 동시에 극복하고 있다. 브로델에게 있어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또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언제나 우위에 있다고 선형적으로 예단할 수 없으며, 이들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일 수도 없다. 브로델의 궁극적인 관심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항구적인 체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소들의 상호관계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사과정들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 결과 브로델의 역사학에서 미시 대 거시의 대립 문제는 축소되어버리며,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sup>29)</sup>

## V. 맺음말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 이 글은 거시사 대 미시사 혹은 극단적인 룡샷 대 클로즈업이라는 대립구도가 브로델의 역사학을 이해하기에 적합한 시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미시사가들의 비판과는 달리, 브로델은 역사를 구성하는 작지만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브로델은 역사의 과정을 이루고 있는 미시적 요소들 사이의 긴장, 갈등, 대립 관계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역사의 진화란 바로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생겨나기

29) 역사 연구에서 ‘관계’에 대한 분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Charles Tilly, “Micro, Macro or Migraine?”, 백승종 외 옮김, 『미시적, 거시적 아니면 편두통?』, 위르겐 슐룸봄 엮음, 『미시사와 거시사』(궁리, 2001)를 참조. 톨리는 “관계적 사실주의”를 통해 개인주의 대 전체주의라는 전통적인 이분법 구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사실 미시사 대 거시사라는 대립 구도는 개인주의 대 전체주의의 이분법에서나 가능한 논리이다. 개인과 사회구조 모두를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 이해했던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게오르그 짐멜 등의 사상에서 개인주의 대 전체주의, 혹은 미시사 대 거시사의 문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브로델의 역사학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계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이다. 이와 같은 브로델의 접근 방법을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제 III권에서 제시되는 ‘역사의 미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룡샷과 클로즈업은 그 기본 의미 자체가 역사학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대상의 움직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카메라 초점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룡샷과 클로즈업에는 역사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간의 개념이 빠져있다.<sup>30)</sup> 따라서 룡샷과 클로즈업의 구도로는 브로델의 역사학뿐만이 아니라 미시사를 이해하기에도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자크 르벨(Jacques Revel)은 미시사가 사회적인 것을 ‘내재적인 특성이 부여된 하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적응을 지향하는 지형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단의 유동적인 상호관계들을 연구하려는 시도’라고 정의한 바 있다.<sup>31)</sup> 르벨의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브로델의 역사학은 미시사와 서로 ‘교차’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브로델은 역사를 “삶 그 자체처럼 백여 가지의 다양하고 상충적인 면모를 차례로 펼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뒤섞여진 문제들이 얹혀있는, 움직이면서 사라져 가는 경관”으로 생각했다.<sup>32)</sup> 이와 같은 역사를 이해하고 해명하기 위해서, 브로델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변화하는 역사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그 과정 내부의 불안정성, 긴장과 갈등의 관계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가 제시한 미분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브로델은 자신의 역사서술 속에 ‘구체적 개인들’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지는 않았다. 역사 속에서 개인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그 자체로 폐쇄된 개인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브로델은 “모든 개인적 모험은 보다 복잡한

30) 따라서 룡샷과 클로즈업은 사진 촬영에도 해당되는 기법이다. 그렇지만, 앞서 머리말에서 언급한 룡테이크는 영화 촬영에만 적용된다. 룡테이크는 시간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31) Jacques Revel, “L’histoire au ras du sol”을 참조.

32) Fernand Braudel, “Les Responsabilités de l’histoire”, *Les Ambitions de l’histoire*, p. 101.



현실, 사회적 현실, 다시 말해 〈교차된〉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았다.<sup>33)</sup> 인간이 역사를 만들뿐만 아니라 역사도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운명을 형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역사, 살아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인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개인을 만들어 내고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현실의 과정, 그 관계들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브로델은 강조한다.<sup>34)</sup>

결국, 브로델과 미시사가들의 진정한 쟁점은 역사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면 가까이서 바라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즉 역사 속의 인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경희대 사학과)

33) *Ibid.*

34) 이 점에서 브로델은 『마르틴 루터: 한 운명』을 루시앙 페브르의 가장 훌륭한 저작으로 꼽는다. 페브르는 서문에서 “비극적인 한 인간의 운명 곡선을 그리고 중요한 시점들을 정확히 식별하여 그가 품었던 애초의 숨결이 어떠한 환경에서 약화되고 굴절되었나를 보여주는 것”을 이 저서의 문제설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페브르에 따르면, 루터가 자신의 운명과 역사의 운명을 주도하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한 인간이었던 것은 독일의 운명과 그의 시대가 루터 자신에게 열려있을 때였다. 하지만, 다시 역사의 시간이 닫히면서 루터는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게 된다. Lucien Febvre, *Martin Luther: Un destin*(PUF, 1928) 참조. 페브르의 저서에 대한 브로델의 언급은 “Les Responsabilités de l'histoire”, p. 113.

## 〈Abstract〉

## Differentiating History: Braudel and Microhistory

Won Koh

Carlo Ginzburg, Italian microhistorian, regards Fernand Braudel as a typical macrohistorian. According to Ginzburg, Braudel stressed only the necessity of macrohistory in his historical writings, and might not grasp the concrete and real figure of human life in history.

Ginzburg does not understand exactly the historical thought of Braudel. This dichotomy of macrohistory and microhistory is not suitable to comprehend the history of Braudel. The French historian never denied the need of 'micro-approach' to a concrete and real process of history. He called it a "differential history". To differentiate history means to deconstruct a long process of history into its micro-elements, and to examine historical forces in them. We can pose a problem of historicity in a differential history, and comprehend tensions and conflicts within a historical process, that make a evolution of history.

The third part of *La Civilisation matérielle, économie et capitalisme, XV<sup>e</sup>-XVIII<sup>e</sup> siècle*, the trilogy of Braudel, shows a differential analyse of capitalist world-economy. The historian differentiates the long history of making of modern capitalist system, and examines a process that 'gesellschaft' called world-economy made 'gemeinschaft', nation state. This process was a product between conflicts of historical forces in the world-economy.

A true point of contention between Braudel and Italian microhistorians is a problem how we comprehend historical individuals. Italian microhistorians approach them from a realist point of view, but Braudel maintains a nominalist view. The human essence in history, according to Braudel, is an ensemble of social relations. The history of Braudel concentrated a point of analysis upon a problem of social relation. As a result, his writing history could sublate the old dichotomy of macrohistory and microhistory.

(Kyung Hee University / vertbois@freechal.com)

주제어(Key Words)

1. 브로델(F. Braudel)
2. 긴즈부르크(C. Ginzburg)
3. 미분사(differential history)
4. 미시사(microhistory)
5. 거시사(macrohstory)